

[애보트] 글로벌 영양사업 분사 추진 - 3 개 분기 연속 역성장한 사업부 분리로 존속 사업 재평가 여지



26.10.21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핵심 요약

- 애보트, 영양사업 비과세 주주배분으로 독립법인 분리 추진
- 역성장 지속된 Nutrition 분리로 포트폴리오 성장을 개선 기대
- 분리 일정·조건 미공개,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세부안 확인 필요

애보트가 글로벌 영양(Nutrition) 사업을 독립된 상장회사로 분리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다. 분리 방식은 주주들에게 신설 법인 주식을 세금 없이 배분하는 비과세 배분(tax-free distribution)으로, 애보트 주주라면 별도 대가 없이 신설 법인 지분을 나눠 받게 되는 구조다. 다만 구체적 교환비율, 분리 완료 시점, 신설 법인의 자본구조나 상장 거래소 등 세부 조건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우리가 애보트의 핵심 리스크로 지목해온 지점과 바로 맞닿아 있다. 영양 사업은 비교 가능 기준 성장률이 3 분기 연속 역성장(-3.6%)을 기록했고, 특히 미국 소아용 제품(Pediatric)이 -10.7%로 부진을 주도하며 전체 실적의 발목을 잡아온 사업부다. 메디컬 디바이스(EP +14%, 리듬 +10.4%, CGM +10.5%)와 캔서 다이애그노스틱스(Cologuard, 비교 가능 +13.3%)가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는 와중에 유독 영양 부문만 역성장을 반복해온 터라, 이를 포트폴리오에서 떼어내면 남은 사업의 평균 성장률과 이익 구조가 깔끔해지는 효과가 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애보트는 12 개월 선행 PE(주가이익비율) 15.4 배로 5 년 평균 23.0 배 대비 33% 할인돼 거래돼 왔는데, 저성장 사업부가 성장 사업의 멀티플을 끌어내리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돼 온 만큼, 분리가 성사되면 잔존 사업의 재평가 여지가 커질 수 있다. 다만 분리 자체가 신설 법인의 독자 경쟁력이나 자본구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분리 조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나, 세부 조건 공개 전까지는 과도한 선반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분리 완료 목표 시점, 신설 법인의 매출·마진 프로파일, 애보트 잔존 사업의 조정 가이드라인 변화 여부를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재무 요약 (I/B/E/S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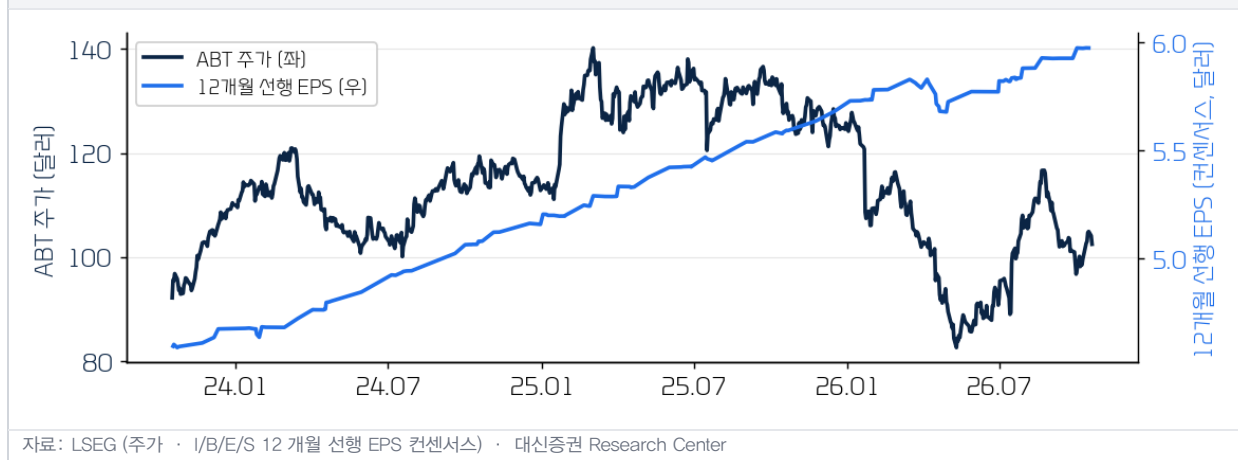
항목	FY Dec-24	FY Dec-25	FY Dec-26 (E)	FY Dec-27 (E)	FY Dec-28 (E)
매출 (Revenue)	41.95	44.33	50.21	54.54	58.51
↘ 증가율	4.59%	5.67%	13.27%	8.63%	7.28%
매출총이익	23.58	23.46	28.46	31.20	33.92
↘ 마진	56.21%	52.93%	56.68%	57.20%	57.97%
EBITDA	10.63	11.73	13.32	14.82	16.14
↘ 마진	25.35%	26.47%	26.53%	27.17%	27.59%
영업이익 (EBIT)	9.29	10.30	11.61	12.91	14.11
↘ 마진	22.16%	23.24%	23.12%	23.67%	24.11%
순이익	8.20	9.04	9.64	10.58	11.75
↘ 마진	19.55%	20.39%	19.21%	19.40%	20.08%
EPS	4.67	5.15	5.52	6.07	6.73
↘ 증가율	5.18%	10.28%	7.16%	9.91%	10.97%
잉여현금흐름 (FCF)	6.35	7.39	7.47	9.60	10.73
P/E	14.8x	33.6x	18.6x	16.9x	15.2x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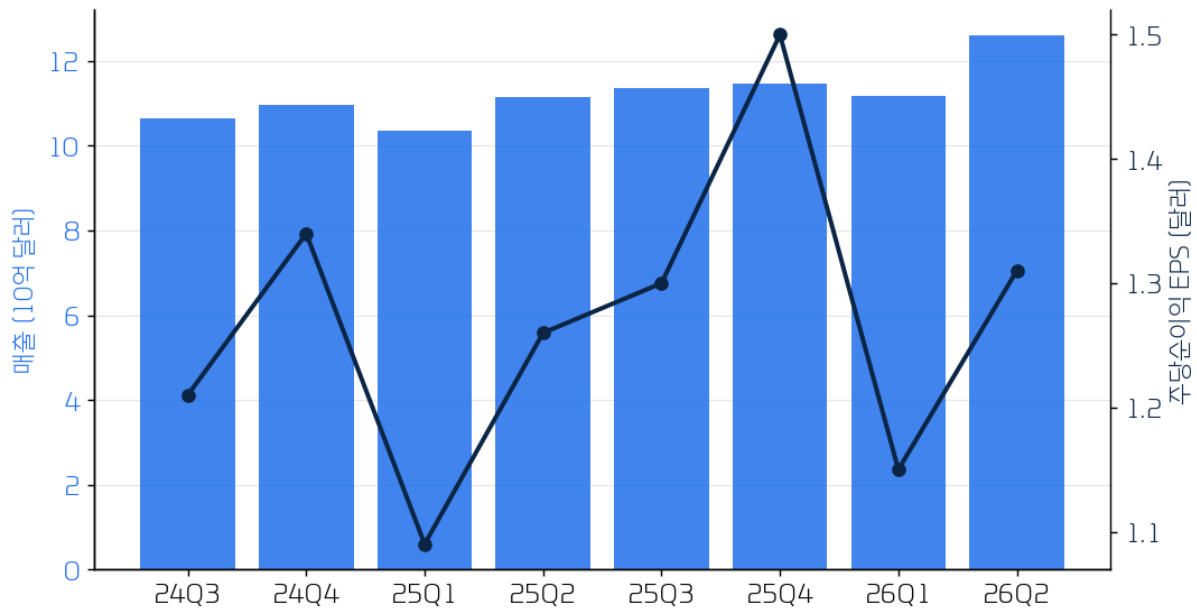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YoY, 단위는 십억 USD

참고 차트

ABT 주가·12개월 선행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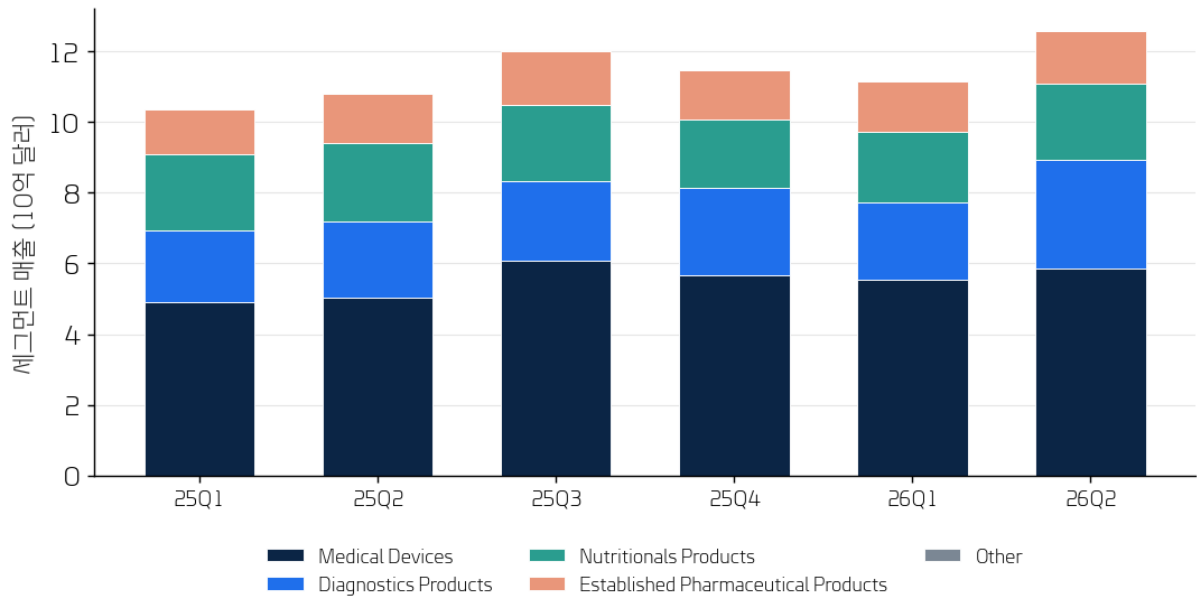


ABT 분기 매출·주당순이익(EPS) 과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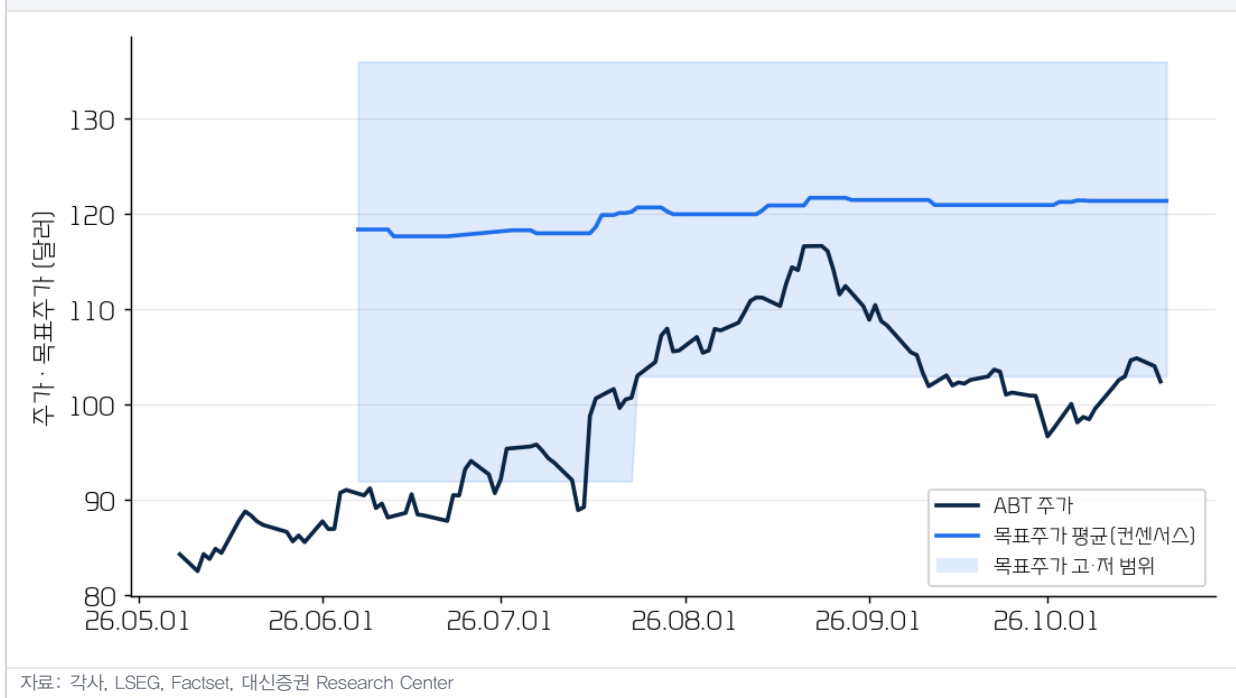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BT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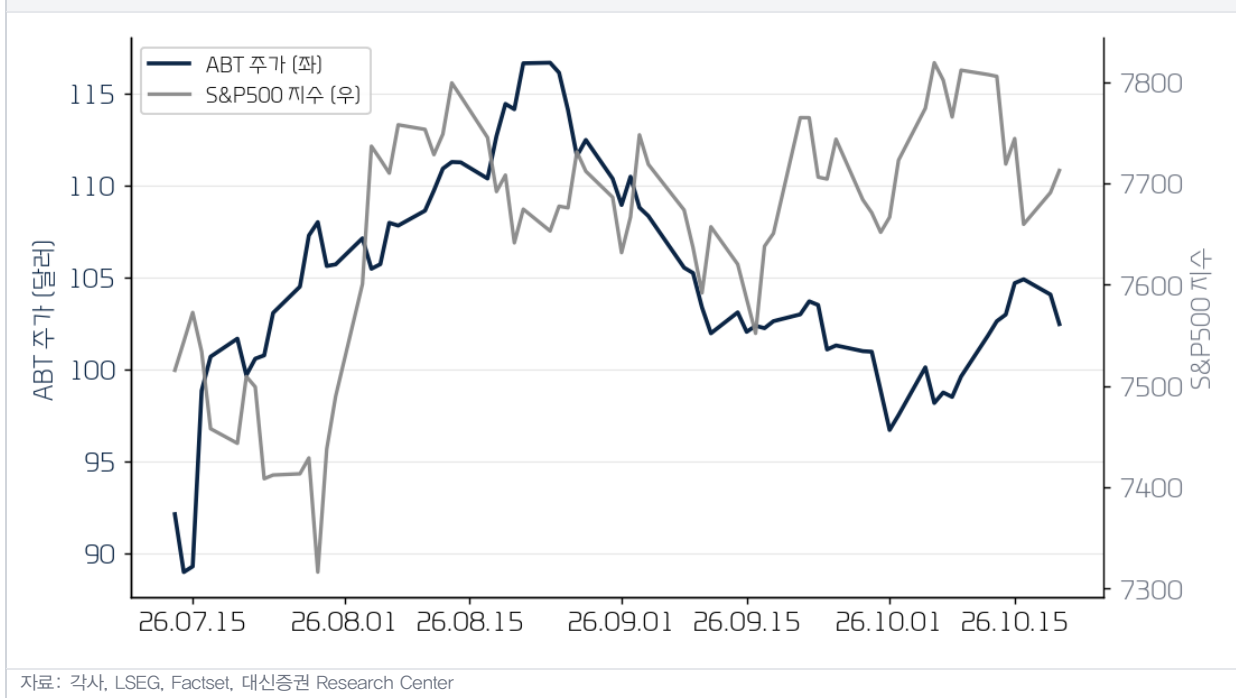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BT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



ABT 주가 vs S&P500 (최근 90 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